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성경: 롬 5:10, 17, 21, 16:20

- I.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중의 의도와 갈망을 갖고 계신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 창 1:26.
- A.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어 모든 것을 그들의 통치 아래 두기를 갈망하신다 — 엡 1:22-23, 롬 16:20.
- B.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의도는 이 우주에서 그분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 비교 마 5:3, 13:43, 롬 14:17.
- C.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의 정상(頂上)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 롬 5:17, 21, 계 2:26-27, 22:5.
- II.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롬 5:10.
1. 법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이다.
 2. 유기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 B.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 롬 5:17, 21.
1.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2. 의의 선물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다. 은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다.
- C.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생명, 왕의 생명,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 막 4:26, 요일 3:9.
1. 이 생명은 우리를 왕들로서 보좌에 앉게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2.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다.
- D.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것의 열쇠이다.
1. 우리는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러한 빛 안에서 보아야 한다.

2.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6장부터 16장까지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항목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3.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이 장들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목들 안에 있게 된다.

III.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A. 체험에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시다 — 비교 마 8:5-13.
 2. 바울은 생활과 사역에서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의 본보기였다 — 고후 2:12-14.
 3.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제한받고 규제받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B.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우리 자신과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이다 — 롬 8:35, 37.
- C.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 롬 5:17-18, 21, 8:2.
 1.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은 반드시 강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느슨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2.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천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다.
 3. 따라서 그는 그의 환경과 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집회와 일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 D.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는다 — 골 1:13상.
- E.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살며, 그 왕국에서 우리는 달콤한 사랑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 — 골 1:13하.
- F.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다 — 잠 21:1, 살후 3:5.
- G.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한다 — 롬 5:17, 21.
 1.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다 — 엠 6:24, 요 21:15-17.
 2.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 누린다 — 히 10:29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3.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 행 20:32, 골 3:16, 비교 램 15:16.
 4. 우리는 하나님을 터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생명의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한다 — 시 133:3, 벰전 3:7, 행 4:33, 11:23.
 5.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은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 고후 12:9.
 6.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3:10, 12상.

7.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 벧전 4:10, 엡 3:2, 고후 1:15, 엡 4:29.
8.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다. 은혜가 의를 산출한다 — 히 11:7, 롬 5:17, 21.
- H.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롬 5:17.
- I.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11:17-24, 갈 2:20상.

IV.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 A.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이다 — 롬 12:2.
- B.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지적인 몸의 생활이다.
- C. 몸의 생활이 실지적인 실재로 건축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곧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
- D. 로마서 12장과 13장에는 몸의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각 항목은 모두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1. 하나님의 자비에 매혹됨 — 롬 12:1상.
 2.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림 — 12:1하.
 3.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음 — 12:2상.
 4.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됨 — 12:2하.
 5.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음 — 12:3상.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함 — 12:3하.
 7.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고려함 — 12:4.
- E.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을 통해서만 몸의 생활을 위해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다.
 1. 위선이 없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 — 롬 12:9상, 10상.
 2.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김 — 12:11.
 3. 환난 가운데 견딤 — 12:12.
 4.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 12:15.
 5.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냄 — 12:18.
- F. 몸의 생활은 교회생활 안에서 표현된다.
 1.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 a.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인다 — 롬 14:1-23.
 - b.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방식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 15:1-13.
 - c. 오직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삶으로써만, 즉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만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교회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가정과 병원과 학교이다.

V.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을 보아야 한다.

- A.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 롬 5:21.
 1.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이다.

2.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에 이르다’라는 말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다.
 - b.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 c. ‘...에 이르다’라는 말은 또한 ‘...이 되다’ 혹은 ‘...이다’를 의미한다.
 - d. 결국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e.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를 의미한다.
- B.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생명의 총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결과와 완결은 유일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하나님은 믿는 이들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심

하나님은 믿는 이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이라고 말한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 왕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집어넣는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안에는 한 왕이 있게 되었는데, 이 왕은 우리를 통제해 왔으며 지금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있다. 17절 하반절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의롭다 함은 선물이며(16절), 은혜는 넘친다. 이런 넘치는 은혜로부터 선물이 온다. 이 선물은 의(義)이다. 의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전 왕은 죽음이었다. 나중의 왕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롭다 함을 받는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가? 죽음은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왕들이 어떻게 왕들이 되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와 같다. 그는 세 살 때 황제가 되었다. 그는 황제였을지라도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몰랐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호자를 필요로 했다.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는 진실로 왕들이지만 어떻게 왕들이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들이 될 수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왕들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생명 안에서 다스림으로써 왕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두 왕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죽음이다. 두 번째 왕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다. 우리는 모두 오늘날의 왕들이다! 우리가 왕들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큰 선물인 의의 선물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이다. 그것은 넘치는 대양과 같다. 두 번 마시면 없어지는 한 잔의 차와 같지 않다. 은혜는 대양과 같다. 이 끝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곧 넘치는 의를 주셨다. 의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모든 마을에 갈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너무 많이 다루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 개월에서 육 개월 내에 이 열 개의 개요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을 넓혀 줄 것이고 구원과 성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많은 영적인 용어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죄와 죽음에 속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반항을 복종시킴

온갖 종류의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영화 중독 등은 죄로부터 온다. 더욱이 모든 종류의 중독은 일종의 거역이다. 어떤 사람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는 아편 없이는 살 수 없다. 아편을 피우는 것은 거역에 속한 것이 된다. 성질을 내는 것도 거역에 속한 것이다. 어떤 아이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오만할 때 우리는 그런 아이를 거역적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 따르면 심지어 아이도 본성에 있어서 거역적이다. 사람은 뼈 속까지도 거역적이며, 그의 머리털 하나 까지도 거역적이다. 이러한 거역이 반항을 초래한다.

죄는 왕 노릇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은 죄인을 통해 왕 노릇 하여 그로 모든 권리들을 잃어버리게 함

죄는 왕 노릇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은 죄인을 통하여 왕 노릇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다툼 때 남자는 남성 왕이 되고 여자는 여성 왕이 된다. 그들은 목소리, 눈, 속눈썹, 심지어 몸의 모든 털까지도 왕이 된다. 가족 전체가 한 무리의 거역하는 왕들이 된다. 싸움이 끝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죄와 죽음이 왕 노릇 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이다.

은혜는 의를 통해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이들이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함

우리는 모두 은혜가 달콤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은혜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은혜는 의를 통해 왕으로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의를 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와 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은혜는 의를 통해, 즉 하나님 자신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 결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한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옴

결혼한 형제자매가 서로 충돌하려고 하거나 서로 다루려고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올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항상 다툼 때,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가족 전체는 거역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은혜와 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논쟁을 가벼운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논쟁은 거역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논쟁일지라도 거역이며, 합당한 이유가 없는 논쟁 또한 거역이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다. 나는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머리털과 혀와 입술과 치아까지도 나에게 복종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오며, 이 하나님의 왕권은 확장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확장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되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결과로 임하는 왕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따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똑같이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서 확장되실 것이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 안으로 심긴 생명의 씨이신 주 예수님이다. 이 씨는 일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까지 발전할 것이다. 이 왕국은 시대의 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방인의 통치가 끝날 때 우리는 큰 형상에 대한 다니엘서 2장에 묘사된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은 주 예수님이다(34절).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35절).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울 것이다(2:31-35). 태산은 그 돌의 확장이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분의 왕권을 확장시키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 더 확장되실수록 더 빨리 돌아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빨리 오실지 늦게 오실지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확장되시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62-67쪽)*